



## 상실 경험 대학생의 애도 반응 개인차 연구: 반추, 사회적 지지 및 기질에 따른 잠재 프로파일 분석\*

Received: April 22, 2026  
Revised: May 29, 2026  
Accepted: May 30, 2026

박소영<sup>1</sup>, 양수진<sup>2</sup>  
이화여자대학 심리학과/ 석사<sup>1</sup>, 이화여자대학 심리학과/ 교수<sup>2</sup>

교신저자: 양수진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 Latent Profile Analysis of Rumination, Social Support, and Temperament in University Students with Loss Experiences: Explo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Grief

E-MAIL: [sujinyang@ewha.ac.kr](mailto:sujinyang@ewha.ac.kr)

Park Soyeong<sup>1</sup>, Yang Sujin<sup>2</sup>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 M.A.<sup>1</sup>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sup>2</sup>

\* 해당 논문은 박소영(2024)의 석사학위논문(수정·보완한 것임).

### ABSTRACT

본 연구는 상실을 경험한 대학생 481명을 대상으로 침습적, 의도적 반추, 사회적 지지 및 기질(정서적 반응성, 감내력)에 따라 잠재 프로파일을 분류하고, 유형별 애도 차이와 영향요인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침습적, 의도적 반추와 정서적 반응성이 낮고 감내력과 사회적 지지가 높은 '저 반추-감내형'과, 이와 반대 특성을 보이는 '고 반추-반응형', 사회적 지지가 낮은 '저 지지형'의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유형에 따른 애도의 하위요인 수준 비교 결과, 상실의 충격과 혼란, 상실의 고통은 '고 반추-반응형', '저 지지형', '저 반추-감내형' 순으로 높았으며, 삶의 회복과 성장은 '저 지지형'보다 '저 반추-감내형'이 높게 나타났다. 남성일수록, 상실 경과 기간이 짧을수록, 물리적·심리적 상실을 경험한 경우 '고 반추-반응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본 연구는 상실 경험 대학생의 이질적 하위집단을 규명하고, 죽음 상실 중심의 기존의 애도 연구에서 나아가 대학생 시기의 물리적·심리적 상실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애도 반응의 개인차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유형별 차별화된 개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주요어 : 상실, 애도, 반추, 사회적 지지, 기질, 잠재 프로파일 분석



© Copyright 2026.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상실은 가치 있게 여기는 대상에 가까이할 수 없게 되거나 더 이상의 가치나 목적을 추구할 수 없게 되는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상황을 의미하며(Carlson, 1978), 내용에 따라 죽음 상실과 관계 상실, 물리적·심리적 상실, 역사적 사건에 의한 상실로 구분할 수 있다(Sofka, 1997).

사람들은 일생에 반드시 한 번 이상 상실을 경험하며 전 생애 어느 때라도 상실을 경험할 수 있고, 대학생 또한 예외가 아니다. 대학생들은 가족 등 소중한 사람의 죽음이나, 연인, 친구 등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 단절, 학업의 실패, 질병으로 인한 건강 상실과 같은 다양한 상실을 경험하며(신나라, 유금란, 2021; 신지영 등, 2015; 윤명숙, 김남희, 2013), 그러한 상실을 큰 고통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현, 이영순, 2017; 신지영 등, 2015). 특히, 40대와 비교하여 20대는 관계 상실을 많이 경험하며 관계 상실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은아, 윤명숙, 2015). 죽음 상실과 관련하여, 노인보다 대학생이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공포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장희숙, 최영임, 2007). 또한, 대학생들은 상실의 영향력을 크게 지각할수록 대학 생활 적응 수준이 낮으며(윤명숙, 김남희, 2013) 이는 자살 사고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명숙, 김서현, 2012). 이처럼 대학생 시기의 상실 경험은 다른 발달단계에서의 상실 경험과 비교하여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대학생의 다양한 상실 경험을 다루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시사된다. 다만 선행연구는 상실 연구의 주요 초점이었다던 죽음 상실과 관계 상실을 중심으로 각각을 독립적으로 다루어왔다. 따라서 대학생이 경험하는 다양한 유형의 상실을 함께 고려하여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상실 이후 사람들은 슬픔, 무감각, 죄책감, 화 등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생리학적 차원의 반응을 경험하며(Howarth, 2011), 애도는 상실로 인해 나타나는 반응을 외부로 표현하는 상태를 의미한다(황정운 등, 2014). 일반적인 애도 반응으로, 사람들은 상실을 부정하고 충격과 마비되는 느낌을 겪거나 고통과 슬픔, 울음, 절망, 불안, 분노, 외로움, 공허함과 무망감, 죄책감을 경험한다(Pop-Jordanova, 2021). 상실은 개인에게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극심한 스트레스 경험이라는 점에서 외상 사건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안주현, 양수진, 2022; Tedeschi & Calhoun, 2004), 상실을 경험한 사람 중 일부는 DSM-5-TR에 새롭게 추가된 지속적 비탄 장애(Prolonged Grief Disorder, PGD; APA, 2022)로 진단될 수 있을 만큼 과도하고 지속적인 반응을 경험하여 임상적 주의가 요구되기도 한다. 반면, 어떤 개인은 상실 대상이 없는 상태에 대해 적응하여 삶을 회복하고 개인의 성장을 이룩하기도 한다(황정운 등, 2014; Frears & Schneider, 1981; Howarth, 2011). 이처럼 애도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이질적인 하위집단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람 중심적 접근인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사용하여 상실 경험에 대한 이질적 집단의 특성을 탐색해 보고자 했다.

애도 반응의 개인차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상실의 결과에 기여하는 요인들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돕기 위하여 통합적 위험요인 모형(Integrative risk factor framework)이 제안되었다. 이 모형에 따르면, 상실을 경험한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실 이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요인에는 상실 유형이나 상실 특성과 같은 스트레스 원인, 기질, 성격, 성별 등의 개인 내적 요

인, 사회적 지지, 개입 프로그램과 같은 개인 간 요인, 그리고 인지적 기제, 정서 조절 등의 해석 및 처리 과정이 포함된다(Stroebe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상실 이후 개인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적응을 넘어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외상 후 성장 모형(Posttraumatic Growth Model; PTG)에서 제시하는 변인에 초점을 맞추어 애도의 개인차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외상 후 성장 모형은 외상 사건의 결과로 긍정적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는 성장의 과정을 설명한다. 이 모형에 따르면, 상실과 같은 삶의 위기를 경험한 개인은 사건 직후에는 반복적이고 자동적인 침습적 반추를, 이후에는 의도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의도적 반추를 경험한다. 기질, 성격과 같은 개인의 내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는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Tedeschi & Calhoun, 2004).

상실 대상과 관련하여 원하지 않은 사고, 감정,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침습적 반추(김라영, 장진이, 2020; Hogan & Schmidt, 2002)는 부적응적인 애도 반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침습적 반추 수준이 높은 경우, 상실에 따른 고통, 슬픔 등의 반응을 과도하고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병리적 애도 증상은 증가한 반면(신지영 등, 2019; Huh et al., 2020), 상실 경험 후의 긍정적 변화와 심리적 성장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선화, 강영신, 2015; Triplett et al., 2012).

이와 달리, 사건과 감정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의미를 찾으려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인 의도적 반추(Stockton et al., 2011)는 적응적 애도 반응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도적 반추는 병리적 애도 증상과 관련이 없거나 증상의 감소로 이어졌으며(차성이 등, 2022; Huh et al., 2020), 외

상 후 성장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된다(송현, 이영순, 2017; 장한, 김진숙, 2017; Triplett et al., 2012).

다만, 외상 후 성장 모형에 따르면, 침습적 반추 과정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유발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의도적 반추를 이끌어내어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Tedeschi & Calhoun, 2004). 이러한 양상은 선행연구에서도 확인되는데, 침습적 반추가 의도적 반추에 강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Triplett et al., 2012), 상실 사건은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를 매개하여 심리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라영, 장진이, 2020; 양귀화, 김종남, 2014; 조선화, 강영신, 2015).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침습적 반추는 의도적 반추와 함께 나타났을 경우에 적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유희정, 2012). 사회적 지지는 상실과 같은 삶의 위기 경험을 타인에게 밝혔을 때 공감적인 수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정서적 고통을 경감하고, 사건에 대해 다른 관점을 고려해 볼 수 있게 한다(Tedeschi & Calhoun, 2004). 이러한 관점에 따라 사회적 지지는 외상 후 성장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주요 예측 변인임이 확인되었다(송현, 이영순, 2017; 유희정, 2014; 이수림, 2013).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것은 다양한 대처양식과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최해연, 2013), 사회적 지지를 낮은 수준으로 경험한 사람은 더 많은 반추를 보였으며(Nolen-Hoeksema et al., 1994; Van der Houwen et al., 2010), 사회적 제약을 높게 지각할수록 높은 수준의 침습적 반추와 관련이 있었다(Lepore et al., 1996). 반대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는 부적응적 애도 반응을 부적응적으로 예측하며(S. Lipp & O'Brien, 2022), 부정적 정서로 이어지는 반추의 효과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uterman et al., 2010).

이처럼 반추하거나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것과 같은 경험에 대한 처리 방식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있고(최해연, 2013), 이러한 처리 과정은 스트레스 지각에 따라 그에 대한 반응을 조절하는 기질과 관련이 있다(Hints et al., 2016). 기질의 조절 이론(The Regulatory Theory of Temperament: RTT)에서 기질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기본적인 성격적 특질을 의미한다(Cyniak-Cieciura et al., 2018). 기질은 자극에 대한 각성 수준을 최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절을 담당하기에(조윤경, 2022), 상실과 같은 어렵고 극적인 상황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Cyniak-Cieciura et al., 2018). 기질의 하위요인에는 행동 강도를 의미하는 '에너지' 범주의 감각 민감성, 정서적 반응성, 감내력, 활동성과 '시간' 범주의 민첩성, 집착성, 리듬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극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 능력과 관련되며(Strelau, 2008),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관련이 높은(Cyniak-Cieciura & Zawadzki, 2021) 정서적 반응성(emotional reactivity; ER)과 감내력(endurance; EN)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정서적 반응성은 감정을 유발하는 자극에 대해 강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을 의미하며(조윤경, 2022; Cyniak-Cieciura et al., 2018), 스트레스, 우울, 불안, 외로움, 외상 후 스트레스를 예측하는 등, 주로 부적응적 반응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서연 등, 2023; 황예은 등, 2022; Cyniak-Cieciura, 2021; Hints et al., 2016; Stolarski & Cyniak-Cieciura, 2016). 또한 외상

사건과 관련된 반복적인 사고 및 각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Oniszczenko, 2014), 사회적 지지의 지각 수준과 부적 상관을 보이며(Rzeszutek et al., 2015), 사회적 관계의 불만족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예은 등, 2022).

반면, 감내력은 장기간 지속되거나 고도로 자극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상황 또는 강한 외부 자극에 대하여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스트레스,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부적 관계를 보이는 등 심리적 적응과 관련이 있었다(Cyniak-Cieciura, 2021; Stolarski & Cyniak-Cieciura, 2016; Hints et al., 2016).

정서적 반응성과 감내력은 일반적으로 부적 관계를 보이는데(Cyniak-Cieciura, 2021; Stolarski & Cyniak-Cieciura, 2016), 이 두 변인은 자극 처리 능력(stimulation processing capacity; SPC; Strelau, 2008)의 구성요소로 포함된다. 자극 처리 능력은 개인이 얼마나 많은 양의 자극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반영하며, 자극에 대한 행동 반응의 강도와 적절성에 영향을 미친다. 낮은 정서적 반응성과 높은 감내력은 높은 자극 처리 능력을 의미하며, 외부 자극에 대해 반응을 효과적으로 조절하여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기질로 여겨진다. 반대로 높은 정서적 반응성과 낮은 감내력은 낮은 자극 처리 능력을 의미하며, 외부 자극에 대해 반응을 조절하기보다는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보일 수 있어 '약한' 기질로 여겨진다(Wytykowska et al., 2022). 선행연구에서도 높은 자극 처리 능력을 보이는 경우에 높은 수준의 감정 이해 및 조절 능력, 긍정 정서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ojanowska & Zalewska, 2017; Matczak & Knopp, 2019). 따라서 기질은 상실을 어떻게 인식

하는지, 그에 대해 얼마나 강하고 오래 반응할지에 영향을 미쳐 상실에 대한 반응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Hints et al., 2016), 반추, 사회적 지지와 같은 상실 경험의 처리 방식과 함께 이질적인 집단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실 경험을 처리하는 과정에는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상실 유형뿐만 아니라 성별과 상실 경과 기간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성별과 관련하여, 여성은 남성보다 정서적 반응성이 높게 나타나며(Hints et al., 2016; Oniszczenko & Laskowska, 2014), 부정적인 반추를 많이 경험하여 부적응적 애도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양귀화, 김종남, 2014). 그러나, 여성은 인지적으로 재평가하고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등 다른 적응적 처리 방식 또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박규리, 안정신, 2016; 임선영, 권석만, 2013; 최해연, 2013).

상실 경과 기간은 애도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고려되고 있다(권지은, 유성은, 2021; Eisma et al., 2015; Shear et al., 2011). 그러나 애도 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초기 단계에는 정서 중심적 대처를 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지적인 이해와 수용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이윤희, 김지연, 2016), 처리 방식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시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애도의 차이로 이어지는 상실 경험에 대한 이질적 집단에 대해 성별, 상실 경과 기간 그리고 상실 유형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종합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유사한 특징을 가진 개인들의 집단을 자연발생적으로 탐색하는 사람 중심적 접근(person-oriented approach) 기반의 잠재 프로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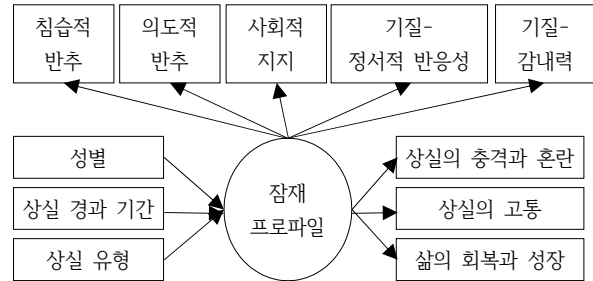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분석(Muthen & Muthen, 2000)을 통해 상실 경험에 대한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 사회적 지지 및 기질에 따라 도출되는 잠재 프로파일 유형을 살펴보고, 각 유형별 애도의 차이 및 성별과 상실 경과 기간, 상실 유형의 영향을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상실 경험 대학생의 반추(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 사회적 지지, 기질(정서적 반응성, 감내력)에 따라 잠재 프로파일 유형이 존재하는가?

**연구 문제 2.** 잠재 프로파일 유형에 따라 애도(상실의 충격과 혼란, 상실의 고통, 삶의 회복과 성장)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3.** 잠재 프로파일 분류에 성별과 상실 경과 기간, 상실 유형이 영향을 미치는가?

## 방 법

## 참여자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신념 체계에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한 충격과 고통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ontana & Rosenheck, 1998; Linley & Joseph,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한 개 이상의 상실 사건을 경험하였고, 당시 충격도를 2점(심각함) 이상으로 평정한 경우만을 참여자로 제한하였다. 총 50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중 상자 도표를 통해 확인한 이상값과 표준점수(z-score)의 절댓값이 3을 초과한 19명의 자료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481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22.35세(SD = 2.47)였으며, 남성은 240명(49.9%), 여성은 241명(50.1%)이었다. 가장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상실 경험 유형은 죽음 상실 209명(43.5%), 관계 상실이 117명(24.3%), 물리적·심리적 상실 115명(32.2%)으로 나타났다.

## 연구절차

본 연구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데이터 수집 업체를 통해 2024년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 온라인 자기 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진행 전 연구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으며, 연구 참여도중 더 이상의 진행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중지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참여자들에 한해 설문을 진행하였다.

## 측정도구

### 상실 경험 체크리스트

Sofka(1997)가 개발한 상실 경험 체크리스트(Loss History Checklist)를 최선재(2011)가 번안하고 임선영(2013), 안주현(2022)이 수정한 문항 중 본 연구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선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상실 유형은 죽음 상실, 관계 상실, 물리적·심리적 상실 및 역사적 사건에 의한 상실의 4가지 범주로 구성되나, 선행연구(안주현, 2022; 최선재, 안현의, 2013)와 같이 역사적 사건에 의한 상실은 국내 연구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제외하였다. 경험한 모든 상실 경험에 응답한 후 그중 가장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웠던 상실 경험 1가지를 선택하여 경과 시간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상실 경험이 발생한 당시와 현재의 충격도를 각각 6점 Likert 척도(0: 전혀 심각하지 않다 ~ 5: 아주 많이 심각하다)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 성인용 애도 척도

애도를 측정하기 위해 황정윤 등(2014)이 개발한 성인용 애도 척도를 다양한 상실 경험에 적합하도록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사별을 경험한 사람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실 경험의 범위를 관계 상실과 물리적·심리적 상실까지 포함하고자, 지시문과 문항을 수정하고 죽음 상실의 경우에만 응답이 가능한 1문항을 제외하였다. 상실의 충격과 혼란 9문항(예, “나에게 상실은 충격적인 사건이다”), 상실의 고통 11문항(예, “상실로 인해 세상은 나에게 가치 없는 곳이다”), 삶의 회복과 성장 10문항(예,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잘 헤쳐 나왔다고 인정해주었을 때 지나온 고통의 순간이 보람이 되어 가슴에 와닿는다”)의 총 30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1: 전혀

아니다 ~ 5: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하는 애도 하위요인의 현재 수준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황정운 등(2014)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상실의 충격과 혼란 .89, 상실의 고통 .92, 삶의 회복과 성장 .91, 전체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상실의 충격과 혼란 .87, 상실의 고통 .95, 삶의 회복과 성장 .83, 전체 .90으로 나타났다.

### 한국판 사건 관련 반추 척도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의 측정을 위하여 Cann 등(2011)이 개발하고 안현의 등(2013)이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사건 관련 반추 척도(Korean version of the Event Related Rumination Inventory; K-ERRI)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침습적 반추 10문항(예, “그 일과 관련한 이미지나 생각들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과 의도적 반추 10문항(예, “그 일을 겪음으로써 내 삶에서 얻은 것이 있는지 생각해본곤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0문항이며, 4점 Likert 척도(0: 전혀 그렇지 않다 ~ 3: 자주 그렇다)로 평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반추 양식을 더 빈번하게 사용함을 뜻한다. 안현의 등(2013)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침습적 반추 .96, 의도적 반추 .95, 전체 .95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침습적 반추 .96, 의도적 반추 .94, 전체 .95로 나타났다.

### 다차원적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

사회적 지지의 측정을 위해 Zimet 등(1988)이 개발한 다차원적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Multidimensional Scale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를 신준섭과 이영분(1999)이 번

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의 지지 4문항(예, “나는 가족으로부터 내게 필요한 감정적인 도움과 지지를 받고 있다”), 친구의 지지 4문항(예, “나는 내 친구들과 내 문제에 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중요한 타인의 지지 4문항(예, “내 감정에 대해서 염려해주는 사람(가족, 친구 제외)이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2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음을 뜻한다. 신준섭과 이영분(1999)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전체 .89이었다.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가족의 지지 .88, 친구의 지지 .91, 중요한 타인의 지지 .89, 전체 .94로 나타났다.

### 한국판 행동 특성 기질 검사 수정판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Cyniak-Cieciura 등(2018)이 개발하고 조운경(2022)이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행동 특성 기질 검사 수정판(Korean Version of Formal Characteristics of Behavior-Temperament Inventory-Revised; FCB-TI(R)-K)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민첩성, 집착성, 리듬성, 감각 민감성, 정서적 반응성, 감내력, 활동성의 7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Likert 척도(1: 매우 동의하지 않음 ~ 4: 매우 동의함)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기질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요인 중 정서적 반응성 11문항(예, “우는 사람을 보면 종종 울컥해진다”), 감내력 13문항(예, “시끄러운 곳에서도 편하게 쉴 수 있다”)만을 사용하였다. 조운경(2022)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정서적 반응성 .83, 감내력 .78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정서적 반응성

.78, 감내력 .70으로 나타났다.

##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5.0과 Mplus 8.3을 사용하여 자료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SPSS 25.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 도구들의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Mplus 8.3을 사용하여 BCH 가중치를 고려하는 수동 3단계 접근법의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BCH 방법은 잠재 프로파일 분류 시 발생하는 측정 오류를 보정하여 결과변수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채택하였다(Asparouhov & Muthén, 2014). 최적 프로파일 수 결정을 위해 AIC, BIC, aBIC 등의 정보지수와 엔트로피, LMR-LRT 및 BLRT 검정을 함께 고려하였다. 정보지수인 AIC(Akaike, 1974), BIC(Schwarz, 1978), aBIC(Sclove, 1987)는 수치가 작을수록 더 적합한 모형으로 간주된다(Jung & Wickrama, 2008). 분류의 질을 의미하는 엔트로피는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분류 오류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며 집단이 명확하게 분류되었음을 뜻한다(Lubke & Muthén, 2007). LMR-LRT(Lo et al., 2001)와 BLRT(Peel & McLachlan, 2000)는 잠재 집단 개수가  $k$ 개인 모형과  $(k-1)$ 개인 모형의 비교를 위한 검정 통계치로써, 검정통계량( $p < .05$ )이 유의할 경우  $k$ 개의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적합함을 의미한다. 또한, 잠재 집단의 최소 비율은 5% 이상(Jung & Wickrama, 2008), 최소 표본 크기는 50명 이상이 적합한 것으로 제시된 바 있다(Muthén & Muthén, 2000). 마지막으로, 잠재 프로파일 모형 결정 시에는 모형의 간명성과 해석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Bauer & Curran, 2003). 이후, Wald

$\chi^2$  검정을 진행하여 도출된 잠재 프로파일별 결과변수(distal outcomes)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영향요인이 잠재 프로파일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Asparouhov & Muthén, 2014; Nylund-Gibson & Choi, 2018).

## 결 과

###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모든 변인은 왜도의 절댓값이 3, 첨도의 절댓값이 10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line, 2023). 주요 변인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주요 변인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 정서적 반응성 간에는 정적 상관( $r > .22$ ,  $p < .001$ )을 보였으며, 감내력은 이들 모두와 부적 상관( $r < -.14$ ,  $p < .01$ )을 보였다. 사회적 지지는 침습적 반추와는 부적 상관( $r = -.17$ ,  $p < .001$ )을, 의도적 반추와는 정적 상관( $r = .13$ ,  $p < .01$ )을 나타냈다. 상실의 충격과 혼란 및 상실의 고통은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 정서적 반응성과 정적 상관( $r > .30$ ,  $p < .001$ )을 보였고, 감내력과 부적 상관( $r < -.11$ ,  $p < .05$ )을 보였다. 상실의 고통은 사회적 지지( $r = -.29$ ,  $p < .001$ )와도 부적 상관을 보였다. 삶의 회복과 성장은 의도적 반추 및 사회적 지지와 정적 상관( $r > .36$ ,  $p < .001$ )을 나타냈다.

표 1.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N=481)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반추	-													
반추	2. 침습적 반추	.86***	-											
	3. 의도적 반추	.85***	.46***	-										
	4. 사회적 지지	-.03	-.17***	.13**	-									
사회적	5. 가족의 지지	-.04	-.16**	.10*	.86***	-								
지지	6. 친구의 지지	-.02	-.16**	.13**	.88***	.59***	-							
	7. 중요한 타인의 지지	-.02	-.14**	.11*	.91***	.69***	.74***	-						
기질	8. 정서적 반응성	.37***	.40***	.22***	-.07	-.08	-.06	-.04	-					
	9. 감내력	-.20***	-.20***	-.14**	-.05	-.05	-.01	-.08	-.39***	-				
	10. 애도	.70***	.69***	.50***	-.01	-.03	-.01	.01	.39***	-.17***	-			
애도	11. 상실의 충격과 혼란	.53***	.60***	.30***	-.06	-.04	-.07	-.03	.40***	-.22***	.80***	-		
	12. 상실의 고통	.64***	.71***	.38***	-.29***	-.28***	-.24***	-.25***	.36***	-.11*	.86***	.57***	-	
	13. 삶의 회복과 성장	.17***	-.06	.36***	.57***	.47***	.51***	.52***	-.02	-.04	.31***	.05	-.10*	
	평균	26.81	12.65	14.16	44.49	15.09	14.51	14.89	29.58	28.16	93.50	31.36	26.98	35.16
	표준편차	13.54	8.14	7.71	9.57	3.60	3.67	3.56	4.83	4.84	17.21	6.91	11.43	6.17
	왜도	-0.03	0.17	-0.10	-0.47	-0.69	-0.67	-0.56	-0.07	-0.19	0.24	-0.40	0.26	-0.36
	첨도	-0.67	-0.83	-0.76	-0.23	0.17	0.13	-0.04	0.20	-0.17	-0.06	0.03	-0.97	0.36

\* $p < .05$ . \*\* $p < .01$ . \*\*\* $p < .001$ .

### 잠재 프로파일 유형의 분류

몇 개의 잠재 프로파일 유형이 도출되는지 파악하고자 잠재 집단의 수가 2개에서 6개일 때 각각의 모형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가장 적합한 잠재 집단 수를 결정하기 위한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정보 지수인 AIC, BIC 및 aBIC는 모두 잠재 집단 수가 증가할수록 더 낮은 값을 보였다. 엔트로피 지수는 잠재 집단의 수가 늘어날수록 증가하다가 6개가 되며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였다. BLRT의  $p$ 값은 모든 경우에서 유의하였으나, LMR-LRT  $p$ 값은 잠재 프로파일 수가 2개, 3개일 경우에만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 집단의 최대/최소 비율을 살펴본 결과, 잠재 집단 수가 2개, 3개, 4개일 때 최소 집단의 비율이 5%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잠재 프로파일의 수가 3개인 모형을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고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도출된 잠재 프로파일의 기술통계치 및 일원 분산분석과 사후분석(post-hoc) 결과를 표 3에 제시하고, 잠재 프로파일 유형을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은 사회적 지지는 높으며 반추와 정서적 반응성 수준이 모두 낮은 반면, 감내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 반추-감내형'으로 명명

표 2. 잠재 프로파일 수 결정을 위한 모형 적합도 지수 및 하위집단 최대/최소 비율(N=481)

	정보지수			분류의 질 Entropy	모형 비교		잠재 집단 최대/최소 비율(%)
	AIC	BIC	Adjusted BIC		LMR-LRT	BLRT	
2	6625.244	6692.058	6641.276	0.685	0.0000	0.0000	50.9/49.1
3	6577.206	6669.075	6599.249	0.729	0.0171	0.0000	42.6/21.6
4	6542.142	6659.066	6570.197	0.740	0.2408	0.0000	33.3/8.9
5	6518.386	6660.365	6552.453	0.785	0.7280	0.0000	32.5/2.6
6	6491.952	6658.987	6532.031	0.736	0.1277	0.0000	26.2/3.5

주. LMR-LRT와 BLRT는 *p*값을 제시하였음.

표 3. 잠재 프로파일 유형별 기술통계(N=481)

	집단 1 ( <i>n</i> =172, 35.8%)		집단 2 ( <i>n</i> =104, 21.6%)		집단 3 ( <i>n</i> =205, 42.6%)		<i>F</i>	Post-hoc
	저 반추-감내형		고 반추-반응형		저 지지형			
	<i>M</i>	<i>SE</i>	<i>M</i>	<i>SE</i>	<i>M</i>	<i>SE</i>		
침습적 반추	-1.05***	.06	1.29***	0.17	.22*	.12	1088.63***	2>3>1
의도적 반추	-.59***	.09	.66***	0.11	.16	.10	73.07***	2>3>1
사회적 지지	.30**	.09	.04	0.13	-.27**	.10	20.67***	1,2>3
정서적 반응성	-.48***	.09	.73***	0.09	.04	.13	72.24***	2>3>1
감내력	.21*	.085	-.54***	0.12	.10	.12	25.28***	1,3>2

\**p*<.05. \*\**p*<.01. \*\*\**p*<.001.

주1. 변인의 값을 표준점수로 변환하여 제시하였음.

주2. 사후 검정은 사회적 지지, 감내력의 경우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여 Scheffe의 방식을 사용하였고,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 정서적 반응성의 경우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지 않아 Games-Howell의 방식을 사용함.

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사회적 지지는 평균 수준 이면서 반추와 정서적 반응성 수준이 모두 높고 감내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고 반추-반응형’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유형은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 정서적 반응성, 감내력 모두 평균에 가까운 수준으로 세 집단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과 달리, 사회적 지지 수준은 다른 집단보다 낮게 나타나 ‘저 지지형’으로 명명하였다.

### 잠재 프로파일에 따른 결과변수의 차이 비교

각 잠재 프로파일 유형에 따라 애도의 하위요인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상실의 충격과 혼란 및 상실의 고통은 집단 간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며, ‘고 반추-반응형’, ‘저 지지형’, ‘저 반추-감내형’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회복과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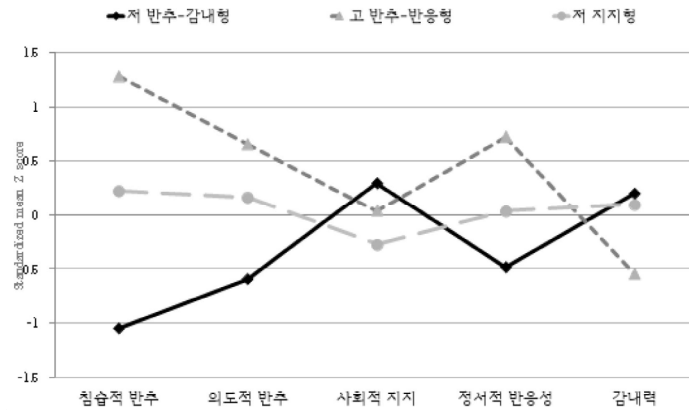


그림 2. 잠재 프로파일 유형

표 4. 잠재 프로파일 유형에 따른 결과변수의 차이 검정(N=481)

	집단 1		집단 2		집단 3		Overall $\chi^2(p)$	집단 비교
	저 반추-감내형	고 반추-반응형	저 지지형	저 지지형	저 지지형			
	M	SE	M	SE	M	SE		
상실의 충격과 혼란	-.77***	.08	.96***	.09	.16*	.07	217.38(***)	2>3>1
상실의 고통	-.91***	.05	1.05***	.11	.23**	.07	380.08(***)	2>3>1
삶의 회복과 성장	.15*	.07	.18	.15	-.22**	.09	10.02(**)	1>3

\* $p < .05$ . \*\* $p < .01$ . \*\*\* $p < .001$ .

주1. 변인의 값을 표준점수로 변환하여 제시하였음.

주2.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분석하고자 다중비교 절차로 Bonferroni-Dunn의 방식을 활용하였음.

수준은 '저 반추-감내형'이 '저 지지형'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반추-반응형'은 '저 지지형'보다 높고 '저 반추-감내형'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나, '저 지지형'과 '고 반추-반응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p = .033$ ).

### 잠재 프로파일의 영향요인 검증

성별, 상실 경과 기간, 상실 유형이 잠재 프로파일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집단과 비교하였

으며,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여성보다 남성이 '고 반추-반응형'보다 '저 지지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상실 경과 기간이 길수록, '고 반추-반응형'보다 '저 반추-감내형' 또는 '저 지지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상실 유형과 관련해서, 죽음 상실보다 물리적·심리적 상실을 경험했을 경우, '저 반추-감내형'보다 '고 반추-반응형' 또는 '저 지지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죽음 상실과 관계 상실에 있어서는 두 상실 유형의 차이가 집단 분류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잠재 프로파일 분류의 영향요인(N=481)

	집단 2 vs 집단 1(준)			집단 3 vs 집단 1(준)			집단 3 vs 집단 2(준)		
	B	SE	OR	B	SE	OR	B	SE	OR
성별	-.35	.32	.70	.43	.28	1.54	.79*	.35	2.20
상실 경과 기간	-.02**	.01	.98	-.01	.00	.99	.01*	.01	1.01
상실 유형(기준: 죽음 상실)									
관계 상실	.23	.40	1.26	.54	.34	1.72	.31	.47	1.35
물리적·심리적 상실	1.39***	.37	4.03	1.29***	.34	3.64	-.10	.39	.90

\* $p < .05$ . \*\* $p < .01$ . \*\*\* $p < .001$ .

주1. 집단 1=저 반추-감내형, 집단 2=고 반추-반응형, 집단 3=저 지지형

주2. 성별: 0=여성, 1=남성

주3. (준)은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을 의미함.

## 논 의

본 연구는 상실을 경험한 대학생 집단에 대하여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 사회적 지지, 정서적 반응성과 감내력에 따른 잠재 프로파일 유형을 발견하고, 애도의 하위요인에 대하여 프로파일 유형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성별, 상실 경과 기간과 상실 유형이 프로파일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시행한 결과, '저 반추-감내형', '고 반추-반응형', '저 지지형' 세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저 반추-감내형'은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 정서적 반응성 수준이 모두 낮은 반면, 감내력과 사회적 지지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복적인 사고가 정서적 반응성과는 정적 상관, 감내력과는 부적 상관을 보인 선행 연구와 일관되는 결과이다(Oniszczenko, 2014). 이 유형에 속한 이들은 높은 감내력과 낮은 정서적 반응성으로 외부 자극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Wytykowska et al., 2022) 상실 경험에 대해 반응을 낮은 수준으로 경험하면서, 보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는 높게 지각하고 있는 집단이다. 이 유형에서 기질과 사회적 지지가 단순히 병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즉, 높은 감내력은 상실 자극에 대한 각성 수준을 조절하여 사건과 관련한 반복적인 사고를 억제하는 한편(Oniszczenko, 2014), 높은 사회적 지지는 상실 경험에 대해 반추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대처 과정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했을 수 있다(Nolen-Hoeksema, 1991).

다음으로, '고 반추-반응형'은 세 집단 중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한 집단으로 '저 반추-감내형'과 대조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유형은 높은 정서적 반응성과 낮은 감내력을 보였는데, 이러한 기질 양상은 상실과 같은 스트레스 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여 반응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Wytykowska et al., 2022). 이에 따라 상실과 관련된 사고가 쉽게 활성화되어 두 반추가 모두 높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가 모두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외상 후 성장 모형에서는 사건 직후 개인은 자동적이고 침습적인 반추를 경험하는 한편, 이후에는 사건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반추가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이는 두 반추가 사고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기능할 수 있으나 한 사건을 처리하는 연관된 방식이며, 상관분석에서 드러났듯 상호 관련성을 지니는 구인임을 시사한다(Tedeschi & Calhoun, 2004). 또한 의도적 반추가 일부에게는 심리적 후유증을 유발하고 유지시키는 등 침습적 반추와 유사한 특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안현의 등, 2013)을 고려하면, 침습적 반추뿐만 아니라 의도적 반추 또한 부정 정서 및 부정 인지에 정적 효과를 보이며, 부정 정서, 외상 후 스트레스와 정적 상관을 나타낸 선행연구(김주은 등, 2019; 윤소희, 장재홍, 2022; 이현진 등, 2020)와 일관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이 유형에 대한 개입은 반추 자체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의도적 반추가 실제로 적응적으로 기능하여 상실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고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정서 조절 능력을 함께 증진하는 방향이 효과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 지지형'은 세 집단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집단으로,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 정서적 반응성 및 감내력 모두 평균 수준에 가깝게 나타났으나 사회적 지지 수준은 낮은 특성을 보였다. 이 유형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한데, 이는 상실을 경험한 대학생 중 상당수가 인지적·기질적 취약성이 두드러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고립이라는 독립적인 위험 경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상실 후 심리적 어려움은 반추나 기질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의 부재

그 자체가 독자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유형은 의도적 반추는 평균 수준인 것과 달리 침습적 반추는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낮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경험한 경우 더 많은 침습적 반추를 보인다는 선행연구와 일관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패턴은 사회적 지지의 부재가 단순히 정서적 위안의 결핍에 그치지 않고, 상실 경험을 인지적으로 처리하고 재구성하는 과정 자체를 방해함으로써 침습적 반추의 지속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Tedeschi & Calhoun, 2004). 특히 대학생 시기는 가족 외 사회적 관계망을 새롭게 구성해 나가는 발달적 전환기로서, 이 시기의 사회적 고립은 상실 이후 회복에 필요한 외적 자원의 활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상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구진영, 장석진, 2019; 이동훈 등, 2018).

잠재 프로파일 유형에 따른 애도의 하위요인 수준을 살펴본 결과, 세 하위요인 모두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먼저, 상실의 충격과 혼란, 상실의 고통은 모두 '고 반추-반응형', '저 지지형', '저 반추-감내형' 순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같은 순으로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 정서적 반응성이 높게 나타나고 감내력이 낮게 나타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즉, 정서적 반응성이 높고 감내력이 낮은 상태에서 반추 수준이 높을수록 상실과 관련된 충격, 혼란 및 정서적 고통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정서적 반응성이 높은 수준의 부정적 정서, 스트레스, 우울, 무감각, 과각성 등의 PTSD 증상을 예측하고 반추와 같은 부적응적 정서 조절 전략을 매개하여 부정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박

서연 등, 2023; Barańczuk, 2018; Oniszczenko & Laskowska, 2014), 감내력은 부적 관계를 보이며(Cyniak-Cieciura, 2021; Hintsä et al., 2016), 침습적 반추가 애도 반응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신지영 등, 2019; Huh et al., 2020)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나아가 이러한 양상은 우울감에 대한 개인의 일관된 반응 양식을 설명하는 반응 양식 이론(response style theory; Nolen-Hoeksema, 1991)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반응 양식 이론에 따르면,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났을 때 내부 초점적 반응 양식인 반추를 보이는 개인은 우울 증상 및 증상의 원인과 결과에 초점을 두게 되면서 편향된 생각으로 이어지고,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을 방해하여 우울 증상을 강화하고 지속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정소담, 김창대, 2020; Just & Alloy, 1997). 정서적 반응성이 높고 감내력이 낮은 개인은 우울 기분을 더 쉽게 경험하는 가운데, 감정과 관련된 자신의 내부에 집중하여 반추로 이어지게 되며 상실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지속적 비탄 장애 관련 연구에서도 지지되는데, 반추와 부적응적 애도 반응은 정적 상관을 보이며(Eisma et al., 2022), 애도 대상에 대한 생각에의 몰두와 죄책감이나 분노와 같은 상실 관련 단서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지속적 비탄 장애 증상의 하위요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Peinado et al., 2025). 즉, 정서적 반응성과 반추 수준이 높은 개인은 상실 이후 부정 정서의 활성화와 지속이 더 용이한 조건에 놓여 있어 지속적 비탄장애로의 이행 위험성을 높일 수 있음이 시사된다.

다음으로, 삶의 회복과 성장은 ‘저 반추-감내형’이 ‘저 지지형’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고 반추-반응형’은 ‘저 지지형’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저 반추-감내형’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각 프로파일 유형의 사회적 지지 수준과 관련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유의하게 낮은 사회적 지지 수준을 보인 ‘저 지지형’과 달리, 평균 이상의 사회적 지지를 수준을 보인 ‘저 반추-감내형’과 ‘고 반추-반응형’은 반추 수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평균 이상의 삶의 회복과 성장 수준을 보였다. 이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대해 큰 효과 크기를 보이고(장한, 김진숙, 2017), 외상 후 성장에 이르는데 영향을 미친다(송현, 이영순, 2017)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본 연구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대학생에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만큼 여러 변수 중 사회적 지지가 상실 경험 후의 회복과 성장에 주요한 기능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성별, 상실 경과 기간 및 상실 유형이 잠재 프로파일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모든 영향요인이 잠재 프로파일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남성은 여성과 비교하여 ‘고 반추-반응형’보다 ‘저 지지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침습적 반추를 더 많이 경험하고(양귀화, 김종남, 2014), 사회적 지지 추구를 더 많이 사용한다(박규리, 안정신, 2016; 최해연, 2013)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남성은 정서 표현을 억제하는 한편, 견디기 힘든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게 여길 수 있으며, 이러한 성차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김나정, 안현의, 2020; 안현의 등, 2012; Belle, 1987).

다음으로, 상실 경과 기간이 길수록 ‘고 반추-반응형’보다 ‘저 반추-감내형’ 또는 ‘저 지지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실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상실과 관련된 자극에 대해 각성과 반추 수준이 감소하고 애도 반응이 경감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김시형 등, 2019; Bonanno et al., 2002; Shear et al., 2011).

상실 유형과 관련해서, 물리적·심리적 상실을 경험했을 경우, 죽음 상실에 비해 ‘고 반추-반응형’ 또는 ‘저 지지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물리적·심리적 상실을 가장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상실 경험으로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정신적 건강 및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신체적, 정신적 안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동시에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최보라, 최연실, 2022) 높은 수준의 반응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죽음 상실은 상실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사건의 종결감(sense of closure)을 느끼고 그에 대한 관심이나 기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최선재, 안현의, 2013). 즉,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 시기에는 죽음 상실보다 물리적·심리적 상실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한편, 죽음 상실과 관계 상실은 프로파일 분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대학생 시기에 관계 상실 경험이 죽음 상실을 경험하는 것과 유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대학생 시기는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고 다양한 관계를 경험하며 학업적, 직업적인 성취를 이루어야 하는 발달적 전환기로서(신나라, 유금란, 2021; 윤명숙 등, 2013), 이 시기의 발달적 과업과 맥락이 상실 및 애도 경험의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대학생의 상실 경험을 이해하는 데 있어 죽음 상실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상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핵심적인 상실 경험의 유형은 발달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각 시기에 고유하게 경험되는 다양한 형태의 상실이 심리적 적응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다른 발달단계에도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다양한 상실 유형과 개인의 기질적 특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애도 반응의 이질성과 개인차를 구체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통합적 위험요인 모형에 따르면 상실 유형과 같은 스트레스 요인, 기질 및 성별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 사회적 지지와 같은 개인 간 요인, 그리고 반추와 같은 인지적 처리 과정이 상호작용하여 애도 반응과 적응 결과를 형성하게 되는데(Stroebe et al., 2006), 본 연구는 이러한 다차원적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애도 반응의 개인차를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갖는다.

더불어 애도 과정에서의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고 적응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잠재 프로파일에 따른 차별적 개입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반추 수준과 정서적 반응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침습적 반추에서 의도적 반추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정서적 고통감의 완화를 도울 수 있는 인지적 재구성 및 정서 조절 중심의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에 대해서는 정서 표현을 촉진하고 대인관계 자원을 확장함으로써 지지 체계를 강화하는 개입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개인의 특성과 상실 경험의 맥락을 반영함으로써, 애도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인 심리적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 결과, 대학생은 물리적·심리적 상

실을 높은 빈도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죽음 상실과 비교하여 물리적·심리적 상실을 겪었을 때 더 많은 반추와 충격 및 고통을 경험하는 ‘고 반추-반응형’에 속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 연령대에는 물리적·심리적 상실이 빈번하며 보편적일 수 있음을 드러내는 동시에, 죽음 상실보다 물리적·심리적 상실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함의하는 결과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대학생 시기에 쉽게 간과되었던 물리적·심리적 상실의 영향을 확인하고 대학생의 상실 경험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침습적 반추가 높고 의도적 반추가 낮거나 침습적 반추는 낮고 의도적 반추가 높은 집단은 확인되지 않았다. 외상 후 성장 모델에 따르면 침습적 반추를 경험해야 의도적 반추로 나아갈 수 있으며(Tedeschi & Calhoun, 2004), 선행연구에서는 현재의 침습적 반추보다는 사건 직후의 침습적 반추, 사건 직후의 의도적 반추보다는 현재의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ku et al., 2009). 이와 관련하여 침습적 반추 또는 의도적 반추만 높은 집단의 가능성이 시사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가 서로 다른 수준을 보이는 집단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는 지표변수에 기질이 포함되어 반추와 함께 작동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변인 간의 방향성을 설정하여 확인한다면,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에 기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성인용 애도 척도는 죽음 상실을 경험한 사람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실의 범위를 죽음 상실뿐만 아니라 관계 상실, 물

리적·심리적 상실로 확대하여 애도의 개인차를 탐색하고자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물리적·심리적 상실을 경험하는 것이 죽음 상실보다 더 강한 반응과 관련됨이 확인된 만큼, 추후 다양한 상실 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애도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횡단 연구로 진행되어 잠재 프로파일 유형을 결정하는 변인의 장기적인 특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상실 경과 기간을 변인으로 포함하여 프로파일 유형을 예측하는 분석을 포함하였으나, 상실 경험 이후 같은 시간이 경과했다라도 개인에 따라 애도 과정의 양상이 다를 수 있다. 추후 종단 연구를 통해 프로파일 유형의 변화 궤적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질, 반추, 사회적 지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실 경험 대학생의 이질적 하위집단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으며, 죽음 상실 중심의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어 온 물리적·심리적 상실의 심리적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애도 반응의 개인차 이해와 유형별 맞춤 개입 설계를 위한 실질적 근거를 제공한다.

##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 참고문헌

구진영, 장석진 (2019). 관계 상실 경험 대학생의

- 정서인식명확성과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심리적 수용의 매개효과. **교육문화연구**, **25**(2), 315-337.  
<https://doi.org/10.24159/joec.2019.25.2.315>
- 권지은, 유성은 (2021). 사건중심성이 청소년기 부모사별을 경험한 초기 성인의 복잡성 사별비애와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외상화된 자기체계와 의미재구성의 매개효과.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0**(2), 156-166.  
<https://doi.org/10.15842/KJCP.PUB.40.2.156>
- 김나정, 안현의 (2020). 외상경험에 대한 사회적 반응과 우울의 관계: 외상 후 인지의 매개효과와 성차. **인지행동치료**, **20**(1), 91-113.  
<https://doi.org/10.33703/cbtk.2020.20.1.91>
- 김라영, 장진이 (2020). 상실을 경험한 대학생의 낙관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고통 감내력, 애도 회피, 침투적 반추,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 **스트레스연구**, **28**(3), 107-117.  
<https://doi.org/10.17547/kjsr.2020.28.3.107>
- 김시형, 신지영, 이동훈 (2019). 사별 이후 지속비에 증상 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4**(2), 371-391.  
<https://doi.org/10.17315/kjhp.2019.24.2.005>
- 김주은, 송용수, 고은정, 신성만 (2019). 포항 지진을 경험한 대학생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지지, 핵심신념 붕괴, 반추 스타일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0**(2), 107-123.  
<https://doi.org/10.15703/kjc.20.2.201904.107>
- 박규리, 안정신 (2016). 남녀노인의 상실경험과 우울간의 관계: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조절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4), 105-130.
- 박서연, 조예진, 현명호 (2023). 직장인의 기질과 우울의 관계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마음챙김의 이중매개효과. **스트레스연구**, **31**(2), 87-95.  
<https://doi.org/10.17547/kjsr.2023.31.2.87>
- 박은아, 윤명숙 (2015). 관계상실경험과 삶의 질의 관계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3**(1), 168-197.
- 송 현, 이영순 (2017). 외상 후 성장 과정의 구조적 관계 분석. **재활심리연구**, **24**(4), 573-591.
- 신나라, 유금란 (2021). 대학생의 상실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양식의 조절효과. **사회과학연구**, **60**(3), 129-147.  
<https://doi.org/10.22418/JSS.2021.12.60.3.129>
- 신준섭, 이영분 (1999). 사회적 지지가 실직자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7**, 241-269.
- 신지영, 김시형, 이동훈 (2019). 사별의 예측 여부에 따른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지속비에 증상의 관계: 외상 후 부정적 인지와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1), 185-215.  
<https://doi.org/10.23844/kjcp.2019.02.31.1.185>
- 신지영, 이동훈, 이수연, 한윤선 (2015). 대학생이 경험하는 외상사건 유형에 관한 연구. **놀이치료연구**, **19**(2), 69-95.
- 안주현 (2022). **상실 경험 중년의 과거긍정 시간관, 의미재구성, 역경후 성장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주현, 양수진 (2022). 상실 경험 중년의 균형적 시간관, 의미재구성, 역경후 성장의 관계. **사회**

- 과학연구논총, 38(2), 117-144.
- 안현의, 박철옥, 주혜선 (2012). 성별에 따른 외상 관련 정서가 PTSD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5), 2363-2378.  
<https://doi.org/10.15703/kjc.13.5.201210.2363>
- 안현의, 주혜선, 민지원, 심기선 (2013). 한국판 사건관련 반추 척도(K-ERRI)의 타당화. **인지행동치료**, 13(1), 149-172.
- 양귀화, 김종남 (2014). 외상 후 성장 과정에 대한 분석: 정서조절곤란,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의 삼중매개효과와 낙관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4), 1041-1062.  
<https://doi.org/10.17315/kjhp.2014.19.4.009>
- 유희정 (2012).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희정 (2014). 탄력성과 고통지각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와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1), 59-85.
- 윤명숙, 김남희 (2013). 대학생의 상실경험과 대학생활 적응 관계에 대한 성인애착의 매개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1(1), 60-89.
- 윤명숙, 김남희, 최혜정 (2013). 부모와 사별한 대학생의 애도경험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삶의 의미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9, 83-111.
- 윤명숙, 김서현 (2012). 대학생 외상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분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2), 5-31.
- 윤소희, 장재홍 (2022).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의도적 반추와 부정 정서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4(4), 1157-1176.  
<https://doi.org/10.23844/kjcp.2022.11.34.4.1157>
- 이동훈, 김시형, 이수연, 최수정 (2018). 트라우마를 경험한 대학생의 지각된 사회적지지, 정서적 자기노출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2), 371-395.  
<https://doi.org/10.23844/kjcp.2018.05.30.2.371>
- 이윤희, 김지연 (2016). 가족 사별을 경험한 대학생의 애도과정 연구. **상담학연구**, 17(4), 225-250.  
<https://doi.org/10.15703/kjc.17.4.201608.225>
- 이현진, 주인석, 김명찬 (2020). 침습적, 의도적 반추와 관련 변인 간의 상관관계 메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3), 1069-1094.  
<https://doi.org/10.23844/kjcp.2020.08.32.3.1069>
- 임선영 (2013). **역경후 성장에 이르는 의미재구성 과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선영, 권석만 (2013). 역경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처리방략과 신념체계의 특성: 관계상실 경험자를 대상으로.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2(3), 567-588.  
<https://doi.org/10.15842/kjcp.2013.32.3.006>
- 장한, 김진숙 (2017). 외상후성장과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18(5), 85-105.  
<https://doi.org/10.15703/kjc.18.5.201710.85>

- 장휘숙, 최영임 (2007). 대학생과 노인의 죽음공포와 죽음불안 및 생활만족의 관계. **人間發達研究**, **14**(4), 105-122.
- 정소담, 김창대 (2020). 국내 반추 연구 동향: 주요 상담학술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1**(6), 59-86.  
<https://doi.org/10.15703/kjc.21.6.202012.59>
- 조선화, 강영신 (2015). 애도 회피에 따른 침투적 반추가 심리적 성장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도적 반추 및 자기노출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3), 641-663.
- 조윤경 (2022). **대인 외상 경험과 기질적 특성이 외상 후 반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차성이, 박신영, 현명호 (2022). 복합 비애 (Complicated Grief)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2010~2020): 체계적 문헌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41**(4), 319-347.  
<https://doi.org/10.22257/kjp.2022.9.41.4.319>
- 최보라, 최연실 (2022). 암 환자의 투병과정에서의 외상 후 성장과 가족의 의미 발견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7**(1), 241-266.  
<https://doi.org/10.21321/jfr.27.1.241>
- 최선재 (2011). **상실 경험의 의미 재구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선재, 안현의 (2013). 상실 경험의 의미 재구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상담학연구**, **14**(1), 323-341.  
<https://doi.org/10.15703/kjc.14.1.201302.323>
- 최해연 (2013). 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 패턴과 심리적응적 특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1), 1-21.
- 황예은, 조예진, 최유승, 현명호 (2022). 재택근무 동안 기질과 우울 및 불안 간 관계에서 일-가정 갈등과 외로움의 병렬다중매개효과. **스트레스研究**, **30**(2), 75-84.  
<https://doi.org/10.17547/kjsr.2022.30.2.75>
- 황정윤, 김미옥, 천성문 (2014). 성인용 애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재활심리연구**, **21**(3), 537-560.
- Akaike, H. (1974). A new look at the statistical model identification. *IEEE transactions on automatic control*, *19*(6), 716-723.  
<https://doi.org/10.1109/TAC.1974.1100705>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22).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text revision: DSM-5-TR*.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publishing.
- Asparouhov, T., & Muthen, B. (2014).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Using the BCH method in Mplus to estimate a distal outcome model and an arbitrary secondary model. *Mplus web notes*, *21*(2), 1-22.
- Barańczuk, U. (2018). Emotion regulation mediates the effects of temperament traits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on affect in motor vehicle accident survivors.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F: traffic psychology and behaviour*, *58*, 528-535.  
<https://doi.org/10.1016/j.trf.2018.06.035>

- Bauer, D. J., & Curran, P. J. (2003). Distributional assumptions of growth mixture models: implications for overextraction of latent trajectory classes. *Psychological Methods, 8*(3), 338-363. <https://doi.org/10.1037/1082-989X.8.3.338>
- Belle, D., Burr, R., & Cooney, J. (1987). Boys and Girls as Social Support Theorists. *Sex Roles, 17*(11), 657-665. <https://doi.org/10.1007/BF00287681>
- Bojanowska, A., & Zalewska, A. M. (2017). Happy temperament? Four types of stimulation control linked to four types of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8*, 1403-1423. <https://doi.org/10.1007/s10902-016-9777-2>
- Bonanno, G. A., Wortman, C. B., Lehman, D. R., Tweed, R. G., Haring, M., Sonnega, J., Carr, D., & Nesse, R. M. (2002). Resilience to loss and chronic grief: a prospective study from preloss to 18-months postlo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5), 1150-1164. <https://doi.org/10.1037//0022-3514.83.5.1150>
- Cann, A., Calhoun, L. G., Tedeschi, R. G., Triplett, K. N., Vishnevsky, T., & Lindstrom, C. M. (2011). Assessing posttraumatic cognitive processes: The event related rumination inventory. *Anxiety, Stress, & Coping, 24*(2), 137-156. <https://doi.org/10.1080/10615806.2010.529901>
- Carlson, C. (1978). *Behavioral concepts and nursing intervention 'Loss'* in chapter 4. 2nd ed. New York, J. B.: Lippincott.
- Cyniak-Cieciura, M. (2021). Psychological flexibility, temperament, and perceived stress. *Current Issues in Personality Psychology, 9*(4), 306-315. <https://doi.org/10.5114/cipp.2021.108685>
- Cyniak-Cieciura, M., & Zawadzki, B. (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ment traits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and its moderators: Meta-analysis and meta-regression. *Trauma, Violence, & Abuse, 22*(4), 702-716. <https://doi.org/10.1177/1524838019876702>
- Cyniak-Cieciura, M., Zawadzki, B., & Strelau, J. (2018). The development of the revised version of the Formal Characteristic of Behaviour-Temperament Inventory FCB-TI (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7*, 117-126. <https://doi.org/10.1016/j.paid.2018.01.036>
- Eisma, M. C., Schut, H. A., Stroebe, M. S., Boelen, P. A., van den Bout, J., & Stroebe, W. (2015). Adaptive and maladaptive rumination after loss: A three wave longitudinal study.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4*(2), 163-180. <https://doi.org/10.1111/bjc.12067>
- Eisma, M. C., Franzen, M., Paauw, M., Bleeker, A., & aan hetRot, M. (2022). Rumination, worry and negative and positive affect in prolonged grief: A

- daily diary study.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29(1), 299 - 312.  
<https://doi.org/10.1002/cpp.2635>
- Fontana, A., & Rosenheck, R. (1998). Psychological benefits and liabilities of traumatic exposure in the war zon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official pub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raumatic stress studies*, 11(3), 485-503.  
<https://doi.org/10.1023/A:1024452612412>
- Frears, L. H., & Schneider, J. M. (1981). Exploring loss and grief within a wholistic framework.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59(6), 341-345.  
<https://doi.org/10.1002/j.2164-4918.1981.tb00564.x>
- Hintsala, T., Wesolowska, K., Elovainio, M., Strelau, J., Pulkki-Raback, L., & Keltikangas-Jarvinen, L. (2016). Associations of temporal and energetic characteristics of behavior with depressive symptoms: A population-based longitudinal study within Strelau's Regulative Theory of Temperament.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97, 196-204.  
<https://doi.org/10.1016/j.jad.2016.02.056>
- Hogan, N. S., & Schmidt, L. A. (2002). Testing the Grief to Personal Growth model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Death studies*, 26(8), 615-634.  
<https://doi.org/10.1080/07481180290088338>
- Howarth, R. (2011). Concepts and controversies in grief and loss.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33(1), 4-10.  
<https://doi.org/10.17744/mehc.33.1.900m56162888u737>
- Huh, H. J., Kim, K. H., Lee, H.-K., & Chae, J.-H. (2020). Attachment style, complicated grief and post-traumatic growth in traumatic loss: the role of intrusive and deliberate rumination. *Psychiatry investigation*, 17(7), 636-644.  
<https://doi.org/10.30773/pi.2019.0291>
- Jung, T., & Wickrama, K. A.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17.  
<https://doi.org/10.1111/j.1751-9004.2007.00054.x>
- Just, N., & Alloy, L. B. (1997). The response styles theory of depression: tests and an extension of the theor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2), 221-229.  
<https://doi.org/10.1037/0021-843X.106.2.221>
- Kline, R. B. (2023).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uilford publications.
- Lepore, S. J., Silver, R. C., Wortman, C. B., & Wayment, H. A. (1996). Social constraints, intrusive thought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bereaved m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271-282.  
<https://doi.org/10.1037/0022-3514.70.2.271>

- Linley, P. A., & Joseph, S. (2004). Positive change following trauma and adversity: A review. *Journal of traumatic stress: official pub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raumatic stress studies*, 17(1), 11-21.  
<https://doi.org/10.1023/B:JOTS.0000014671.27856.7e>
- Lo, Y., Mendell, N. R., & Rubin, D. B.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3), 767-778.  
<https://doi.org/10.1093/biomet/88.3.767>
- Lubke, G., & Muthen, B. O. (2007). Performance of factor mixture models as a function of model size, covariate effects, and class-specific parameter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1), 26-47.  
<https://doi.org/10.1080/10705510709336735>
- Matczak, A., & Knopp, K. A. (2019). Relationship between temperament and the experiential and strategic components of emotional intelligence. *Polish Psychological Bulletin*, 50(2), 93-100.  
<https://doi.org/10.24425/ppb.2019.126023>
- Muthen, B., & Muthen, L. K. (2000). Integrating person centered and variable centered analyses: Growth mixture modeling with latent trajectory class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6), 882-891.  
<https://doi.org/10.1111/j.1530-0277.2000.tb02070.x>
- Nolen-Hoeksema, S. (1991). Responses to depression and their effects on the duration of depressive episod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4), 569-582.  
<https://doi.org/10.1037/0021-843X.100.4.569>
- Nolen-Hoeksema, S., Parker, L. E., & Larson, J. (1994). Ruminative coping with depressed mood following lo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1), 92-104.  
<https://doi.org/10.1037/0022-3514.67.1.92>
- Nylund-Gibson, K., & Choi, A. Y. (2018). Ten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latent class analysis. *Translational Issues in Psychological Science*, 4(4), 440-461.  
<https://psycnet.apa.org/doi/10.1037/tps0000176>
- Oniszczenko, W. (2014). Temperamental correlates of trauma symptoms in firemen, policemen and soldiers. *International journal of occupational medicine and environmental health*, 27(4), 599-607.  
<https://doi.org/10.2478/s13382-014-0287-3>
- Oniszczenko, W., & Laskowska, A. (2014). Emotional reactivity, coping style and cancer trauma symptoms. *Archives of Medical Science*, 10(1), 110-116.  
<https://doi.org/10.5114/aoms.2013.33069>
- Peel, D., & McLachlan, G. J. (2000). Robust mixture modelling using the t distribution.

- Statistics and computing*, 10, 339-348.  
<https://doi.org/10.1023/A:1008981510081>
- Peinado, V., Shevlin, M., Trucharte, A., Contreras, A., & Valiente, C. (2025). ICD-11 prolonged grief disorder: Factors, correlates, and functional impairment. *Death Studies*, 1 - 10.  
<https://doi.org/10.1080/07481187.2025.2469135>
- Pop-Jordanova, N. (2021). Grief: Aetiology, symptoms and management. *prilozi*, 42(2), 9-18.  
<https://doi.org/10.2478/prilozi-2021-0014>
- Puterman, E., DeLongis, A., & Pomaki, G. (2010). Protecting us from ourselves: Social support as a buffer of trait and state ruminat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9(7), 797-820.  
<https://doi.org/10.1521/jscp.2010.29.7.797>
- Rzeszutek, M., Oniszczenko, W., Schier, K., Biernat-Kałuża, E., & Gasik, R. (2015). Trauma symptoms, temperament traits, social support and the intensity of pain in a Polish sample of patients suffering from chronic pai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3, 13-17.  
<https://doi.org/10.1016/j.paid.2015.03.036>
- S. Lipp, N., & O'Brien, K. M. (2022). Bereaved college students: Social support, coping style, continuing bonds, and social media use as predictors of complicated grief and posttraumatic growth.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85(1), 178-203.  
<https://doi.org/10.1177/0030222820941952>
- Schwarz, G. (1978). Estimating the dimension of a model. *The annals of statistics*, 6(2), 461-464.  
<https://doi.org/10.1214/aos/1176344136>
- Sclove, S. L. (1987). Application of model-selection criteria to some problems in multivariate analysis. *Psychometrika*, 52(3), 333-343.  
<https://doi.org/10.1007/BF02294360>
- Shear, M. K., Simon, N., Wall, M., Zisook, S., Neimeyer, R., Duan, N., Reynolds, C., Lebowitz, B., Sung, S., & Ghesquiere, A. (2011). Complicated grief and related bereavement issues for DSM 5. *Depression and anxiety*, 28(2), 103-117.  
<https://doi.org/10.1002/da.20780>
- Sofka, C. J. (1997). Loss History Checklist. In J. D. Mannino (Eds.), *Grieving days, healing days*, (pp. 20). Boston: Allyn & Bacon.
- Stockton, H., Hunt, N., & Joseph, S. (2011). Cognitive processing, rumination, and posttraumatic growth.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4(1), 85-92.  
<https://doi.org/10.1002/jts.20606>
- Stolarski, M., & Cyniak-Cieciura, M. (2016). Balanced and less traumatized: Balanced time perspective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ment and severity of PTSD syndrome in motor vehicle accident survivor sample. *Personality and*

- Individual Differences*, 101, 456-461.  
<https://doi.org/10.1016/j.paid.2016.06.055>
- Strelau, J. (2008). *Temperament as a regulator of behavior: After fifty years of research*. Eliot Werner Publications.
- Stroebe, M. S., Folkman, S., Hansson, R. O., & Schut, H. (2006). The prediction of bereavement outcome: Development of an integrative risk factor framework. *Social Science & Medicine*, 63(9), 2440-2451.  
<https://doi.org/10.1016/j.socscimed.2006.06.012>
- Taku, K., Cann, A.,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9). Intrusive versus deliberate rumination in posttraumatic growth across US and Japanese samples. *Anxiety, Stress, & Coping*, 22(2), 129-136.  
<https://doi.org/10.1080/10615800802317841>
-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1), 1-18.  
[https://doi.org/10.1207/s15327965pli1501\\_01](https://doi.org/10.1207/s15327965pli1501_01)
- Triplett, K. N., Tedeschi, R. G., Cann, A., Calhoun, L. G., & Reeve, C. L. (2012). Posttraumatic growth, meaning in life, and life satisfaction in response to trauma.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4(4), 400-410.  
<https://doi.org/10.1037/a0024204>
- Van der Houwen, K., Stroebe, M., Stroebe, W., Schut, H., van den Bout, J., & Wijngaards-De Meij, L. (2010). Risk factors for bereavement outcome: A multivariate approach. *Death studies*, 34(3), 195-220.  
<https://doi.org/10.1080/07481180903559196>
- Wytykowska, A., Fajkowska, M., & Skimina, E. (2022). Taking a person-centered approach to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 latent-profile analysis of temperament and anxiety, and depression typ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9, 111489.  
<https://doi.org/10.1016/j.paid.2021.111489>
-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 Farley, G. K.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  
[https://doi.org/10.1207/s15327752jpa5201\\_2](https://doi.org/10.1207/s15327752jpa5201_2)

## Latent Profile Analysis of Rumination, Social Support, and Temperament in University Students with Loss Experiences: Explo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Grief

Park Soyeong<sup>1</sup>      Yang Sujin<sup>2</sup>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M.A<sup>1</sup>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sup>2</sup>

This study classified 481 university students who had experienced loss, based on rumination (intrusive/deliberate), social support, and temperament (emotional reactivity/endurance), and examined differences in grief and the effects of gender, time since loss, and loss type across profiles. Three profiles emerged: “low rumination-endurance”(low rumination/reactivity, high endurance/support), “high rumination-reactivity” (the opposite pattern), and “low support” (low social support). Shock and confusion related to loss and pain of loss were highest in “high rumination-reactivity,” and lowest in “low rumination-endurance.” Recovery and growth in life were higher in “low rumination-endurance” than in “low support” profiles. Men, individuals with a shorter time since loss, and those who experienced physical or psychological loss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high rumination-reactivity” groups. These findings offer insights into individual differences in grief and the development of tailored interventions.

*Keywords* : Loss, Grief, Rumination, Social Support, Temperament, Latent Profile Analysis